

전주 예술인들의 숭고한 가치 조명

▶ 전주 백인의 자화상 인문학 콘서트

오늘 박종수 화백 초청 강연
7일 이운룡 시인이 다음 연사로
지역 문화 길잡이 역할 기대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5일과 7일 박종수 화가와 이운룡 시인 등 두 원로 예술인을 초청해 인문학콘서트를 연다. 이번 인문학콘서트는 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로·작고 예술인 기록사업 '전주백인의 자화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주를 연구로 활약한 문화예술인의 숭고한 예술 가치를 조명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학들이 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취지다.

올해는 문학분야에 이운룡·故박봉우·故박정만, 미술분야에 박종수·엄택수·故하상용, 음악분야에 조소녀 씨 등의 예술인 기록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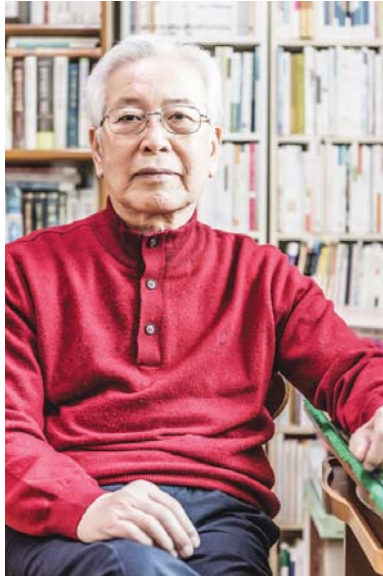
먼저 5일 오후 4시 동문예술거리 동문길 60에서 박종수 화가는 '꿈꾸는 순례자, 화가 박종수'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전주백인의 자화상' 인문학콘서트 토크콘서트 형식을 빌려 진행된다. 박 화백과 함께 시인 강상기, 예원예대 교수 김선태(박 화백의 제자), 화가 노해남(박 화백의 제자), 김미진(기록자) 등이 화자로 무대에 올라 이야기꽃을 피운다.

고향 출신인 박 화백은 56년간 미술계에 몸담고 있다. 지난 32년(1974~2005년)간 교편(고창고, 전북사대부고, 신도립중, 신림고, 덕수고)을 잡았다. 1979년 전북예술회관서 첫 개



박종수 화백(사진 왼쪽)과 이운룡 시인.



인전을 시작으로 초대·기획·그룹전 등을 통해 총300여회 출품했다.

7일 오후 3시 전북문화관에선 이운룡 시인이 다음 연사로 나선다.

진안 출신인 그는 전주에서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1964년부터 1969년 김현승 시인의 3회 추천을 완료함에 따라 '현대문학' 지를 통해 등단했다. 또한 1983년 '월간문학'에서 '시와 자기 문학의 변증법'이 신인작품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원형감(문학평론가)의 추천으로 문학평론가로도 이름을 올렸다.

그간의 창작물로는 시집 17권, 시론서와 문

학이론서 11권, 발표시 866편, 시론과 문학이론 197편 등이 있다.

전북문인협회 회장단과 전북문화관 관장 등을 역임했고, 1958년 무주과목초 강사를 시작으로 2003년 중부대 국문과 초빙 부교수까지 46년간 교편을 잡았다.

이날 콘서트는 '중산을 찾아다니며 행복을 전한 학의 시인 이운룡'이란 주제로 소재호 전 석정문학관장, 시인 이재숙, 제자 송희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참석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 및 전주시민은 전화(063-283-9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지방 임산본 전국정가경창대회 장원에 류정임씨

(사)정가보존회는 '제10회 지방 임산본 전국정가경창대회' 장원에 류정임(55·대구) 씨를 선정했다.

전북도도와 전북도의회,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북도민일보,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창조연구소, 전라북도 시조명인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대상부와 국창부, 특별, 갑부, 을부 등에 정가 동호인들이 대거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대상부에 출전한 류정임 씨는 '우시조 나비야와 여름저녁시조 창내고자' 등을 불러 장원을 차지해, 전라북도지사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류씨는 "지난 대회에서 최우수상만 두 차례 수상했는데 올해 대회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장원을 받았다"며 "앞으로 정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상부 최우수상에는 윤선희(56·전북 순창), 이상덕(70·경남 창원) 씨가 수상

을 차지해 전주시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국창부 최우수상은 황인숙(56·전남 여수) 씨가 대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을, 특별 최우수상은 남봉현(69·충북 청주) 씨가 이사장상을 받았다.

갑부 최우수상(이사장상)은 신영숙(67·전북 전주) 씨가, 을부 최우수상(이사장상)은 양옥례(82·전남 영광) 씨가 각각 수상했다.

입환 집행위원장은 "금년에도 정가 동호회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정가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강암서예대전 초대작가전 7일까지

강암서예학술재단(이사장 송하경)이 주관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다섯 번째 강암서예대전 초대작가전이 전북도예술회관 1층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강암서예초대작가회는 그동안 총 18회에 이르는 강암서예대전을 통해 배출된 초대작가들의 모임으로, 현재 총129명의 회원이 한국서단의 중추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78명의 초대작가들의 혼(魂)과 기(氣)가 깃든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송하경 재단 이사장은 "심오한 동양예술로써 서예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바램을 전했다.

전시는 오는 7일까지.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공개 개봉작 '키워드'

생의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움직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 4층)은 생의 두려움과 그리움 그리고 움직임을 포착한 영화 3편 '초행', '돌아온다', '에드워드'를 오는 7일 개봉·상영한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록젝트 <초행>은 동거를 하고 있는 지영과 수현이 결혼을 생각할 시기가 찾아오면서 서로의 가족들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감독은 오랜 연인이 겪는 상황과 감정을 섬세한 연출로 표현하며 연애와 결혼 등 현실적인 문제를 영화로 그려냈다.

제70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에 해당하는 '현재의 감독' 부문 감독상 수상. 제32회 마르델 플라타 국제영화제 국제 경쟁 부문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상영작 '돌아온다'는 가슴속 깊이 그리운 사람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어느 막걸리집 단골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제36회 서울연극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동명의 연극을 영화화했다. 울주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스크린, 브라운관, 연극 무대를 오가며 여기에 배우들의 명연기가 더해져 관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제41회 몬트리올국제영화제 신인감독경쟁 금상을 수상했다.

또 한편의 영화는 에디슨과 루미에르 형제보다 앞서 최초의 영사기 주프라스코프를 발명한 19세기 사진가 에드워드 마이브리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에드워드'.

작품은 천재 사진가 에드워드 마이브리지의 작품세계와 삶 그리고 사랑을 그린다. 에드워드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몸동작을 분석하기 위해 누드 사진이란 당대의 금기를 행했으며, 말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해낸 12컷의 사진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인물.

이러한 그의 업적을 영화 속에서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 파격적인 노출 장면을 담았으나 선정성 없이 자연스러운 상황연출로 인정받아 15세 관람가 등급을 확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초행 - 오랜 연인의 감정 섬세한 연출로 표현
돌아온다 - 막걸리집 단골 이야기 담아내
에드워드 - 천재 사진가의 삶과 사랑 그려내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